

추석 극장대전 승자는 '나쁜 녀석들'



'나쁜 녀석들: 더 무비' 마동석



'타짜: 원 아이드 잭' 박정민



'힘을 내요, 미스터리' 차승원



'나쁜 녀석들: 더 무비' 김아중

지난 11일 동시 개봉한 한국영화 3편 가운데 '나쁜 녀석들: 더 무비'가 추석 연휴 극장가 최종 승자가 됐다.

1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나쁜 녀석들: 더 무비'(손용호 감독)는 전날 75만6839명을 추가하며 총 관객 210만8749명을 기록했다. 개봉 나흘째 200만 명 돌파는 역대 추석 연휴 개봉 한국영화 가운데 '남한산성'(2017)과 함께 최단 기록이다.

이 작품은 '타짜: 원 아이드 잭'(이하 '타짜3')에 밀려 2위로 출발했으나 하루 만에 정상을 탈환한 뒤 사흘째 1위를 지켰다. 좌석판매율도 60%로, 세편 중 가

'나쁜 녀석들: 더 무비' 개봉 나흘만에 200만명 돌파 '타짜: 원 아이드 잭' 2위·'힘을 내요, 미스터리' 3위

장 높다. 총제작비 110억원이 투입된 이 작품 손익분기점은 260만명으로, 조만간 제작비를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작품 성과는 별개로 마동석식 액션과 유머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작품을 투자·배급한 CJ엔터테인먼트는 추석 영화마저 흥행 흥판을 치면서 합박웃음을 지었다. 올 초 선보인 '극한직업'은 1600만명을 동원했고 '기생충'은 1천만명을, 여름 시즌 개봉한 '엑시

트'는 936만명을 각각 불러모으는 등 올해 CJ가 선보인 영화들은 연타 흥행을 이어가는 중이다.

'타짜3'(권오광)는 전날 36만8792명을 동원해 2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 수는 143만7679명으로 늘었다. '타짜3'역시 제작비 110억원이 들어가 손익분기점은 260만명이다. 영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개봉일 1위로 출발했으나 '타짜' 1, 2편과 허영만 원작 등과 비교되며 탄력

을 받지 못했다. 2006년 추석 시즌 개봉한 '타짜' 1편은 최종 568만명을, 2014년 선보인 '타짜-신의 손'은 401만명을 각각 동원했다.

'힘을 내요, 미스터리'는 24만명을 불러들이며 누적 관객 73만3508명을 기록했다. 손익분기점은 200만명이다. '럭키'를 연출한 이계벽 감독 신작으로, 감동은 있지만 웃음 코드가 약하다는 평을 받았다.

영화 '벌새'(김보라)와 '우리집'(윤가은)도 연휴 기간 관객을 꾸준히 불러 모아 각각 총 관객 6만8154명과 4만7203명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부활' 출신 정동하, 내일 새 미니앨범 발표

밴드 부활 보컬 출신 정동하(39·사진)가 17일 새 미니앨범을 발표한다.

최근 소속사 뮤직원컴퍼니에 따르면 앨범에는 타이틀곡 '이별을 노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를 비롯해 '밤이 두려워진 건', '그게 너였어' 등 6개 트랙이 수록됐다.

'이별을 노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는 '사랑 그대 다 떴네'를 시작으로 '내가 없으면 안돼 왜 이제 와서 그만 말을 해 이제 사랑 사랑 사랑 날'이란 노랫말이 담겼다.

정동하는 이 곡을 비롯해 앨범에서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인다.

소속사는 "정동하의 가창력과 음색을 담아내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며 "신곡들이 듣는 이들의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하는 앨범에 이어 10월 11~27일 구름아래소극장에서 9회에 걸쳐 '컬러 콘서트'(COLOUR CONCERT)를 개최한다.

공연은 각 회사 콘셉트를 달리해 평소 공연이나 방송에서 들을 수 없던 커버곡부터 미발매 곡까지 다채롭게 구성된다. 또 기존 발매곡 중 어쿠스틱 버전 등 새로운 편곡도 가미해 들려준다. /연합뉴스



2005년 부활 9대 보컬로 데뷔한 정동하는 2013년까지 정규 앨범 4장에 참여하며 이 밴드 역대 최장 보컬로 꼽혔다. 2014년 첫 솔로앨범 '비긴'(BEGIN)을 내며 홀로 서기를 했다.

또 2012년부터 뮤지컬로 활동 영역을 넓혀 '요섭 아메이징', '노트르담 드 파리', '잭 더 리퍼', '투란도트' 등에 출연해 배우로도 입지를 굳혔다.

KBS 2TV '불후의 명곡'과 MBC TV '복면가왕' 등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라이브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라디오 진행자로도 활약했다. /연합뉴스

KBS월드 '퀴즈 온 코리아' MC 이혜성 합류

KBS월드는 이혜성(사진) 아나운서가 '퀴즈 온 코리아' 공동 MC로 합류해 광희와 호흡을 맞춘다고 최근 밝혔다.

이 아나운서는 현재 KBS 2TV '연예가중계', KBS라디오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다.

또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며 차세대 '아나테이나'(아나운서+엔터테이너)로 주목받는 신예다.

올해 8회째를 맞는 '퀴즈 온 코리아'는 오는 21일 오후 5시 여의도 KBS홀에서 녹화한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필 셀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웰컴2라이프(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웰컴2라이프(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2019 연중특별기획 2030 미래리포트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2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재)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셀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	00 월드컵 베스트 다크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변신자동차 또봇	00 5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웰컴2라이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05 같이 펀딩 스페셜	00 리틀 포레스트
11	00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작 KBS 스페셜 55 저널리즘 토크쇼 J	10 안녕하세요	10 문화콘서트 난장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50 KBS 뉴스	35 비바 K리그	10 스포츠 다이어리 25 낭만클럽	40 나이트 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3:00 EBS 다크프라임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내 마음의 안전기지	19:00 스파이더맨
08:00 덩동댕 유치원1~2	14:45 물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띠띠뽀 띠띠뽀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00 TV로 보는 원작동화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9:00 출동! 슈퍼윙스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15 마사와 곰	15:55 출동! 슈퍼윙스(재)	21:30 한국기행
09:30 원더볼즈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트롯트 기행 1부 목표의 눈물, 목표의 노래>
10:00 지식의 기쁨	16:25 마사와 곰(재)	21:50 EBS 다크프라임
10:30 한국기행(재)	16:40 덩동댕 유치원(재)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3:35 내 마음의 안전기지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4:25 지식의 기쁨(재)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그(재)	24:55 지식채널e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7:45 띠띠뽀 띠띠뽀(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6일(음 8월 18일 丙辰)

<p>36년생 지체하지 않는다면 소비로 이어진다. 48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다. 60년생 주체성과 독창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72년생 최후의 결정은 직접 내리는 것이 좋다. 84년생 아주 희박했던 가능성이 차차 농후해지는 위상에 놓인다. 96년생 자신감을 갖고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행운의 숫자 : 18, 17</p>	<p>30년생 애대우며 기다리던 보람이 있을 것이다. 42년생 잘 살펴 보고 모색한다면 확실한 대안이 마련된다. 54년생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꼭 행해야겠다. 66년생 미루어 왔던 것을 진행하기에 시의적절하다. 78년생 하나의 이권 아래 다수의 이해 관계들이 모여 들 것이다. 90년생 계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까지 수정하라.</p> <p>행운의 숫자 : 72, 93</p>
<p>37년생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뜻 깊은 체험이 될 것이다. 49년생 하찮은 것에서 비롯된 불행함이 보인다. 61년생 상당한 수익이 주어지면서 풍요로움을 더 할 것이다. 73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길은 열리게 될 것이다. 85년생 유능한 인재를 만나거나 우수한 제품을 접하라. 97년생 앞서 가려 한다면 오히려 약화 되리라.</p> <p>행운의 숫자 : 79, 21</p>	<p>31년생 재판사가 지연되고 결과가 늦추어질 수 있다. 43년생 취구명에도 별달이 있느니라. 55년생 마무리 단계에서 정제할 수 있다. 67년생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미흡하다. 79년생 사립귀경과 인과응보의 근박철칙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91년생 교제 해 주어야만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다.</p> <p>행운의 숫자 : 96, 57</p>
<p>38년생 관세를 좌우하는 요인이 보인다. 50년생 발전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교류가 있다. 62년생 다시 예쁜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74년생 의도하였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86년생 흥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98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결과를 낳는다.</p> <p>행운의 숫자 : 22, 78</p>	<p>32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지에 주목하라. 44년생 임시적인 조처에 그친다면 많은 손해를 불러들인다. 56년생 중요한 것들이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68년생 쉬 더운 구들이 쉬 식는 법이다. 80년생 때와 장소에 따른 상황 파악에 신경 써야 하리라. 92년생 돌발적인 변수까지 감안하지 않으면 다 된 마당에 파탄날 수도 있다.</p> <p>행운의 숫자 : 62, 55</p>
<p>39년생 생산적인 관계가 되도록 유도하라. 51년생 받아들이는 것 못지않게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63년생 아직은 모호하니 추이를 지켜봐야 할 판국이다. 75년생 일거양득의 효과가 크겠다. 87년생 좋다고 너무 기뻐할 일도 아니요 나쁘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99년생 뜻밖으로 이중 또는 삼중의 행운이 따르리라.</p> <p>행운의 숫자 : 10, 99</p>	<p>33년생 근본을 살펴보면 길 이질 정해질 것이다. 45년생 자신부터 열린 마음으로 대하라. 57년생 짐작이 가더라도 굳이 내색할 필요는 없었다. 69년생 사세가 급하다고 하여서 불필요한 것까지 수용할 이유는 없다. 81년생 독창성이 요구되는 시점이 다. 93년생 충분히 검토한 결과가 확실하다면 과감하게 변경해도 무난하다.</p> <p>행운의 숫자 : 67, 12</p>
<p>40년생 목전의 진실을 호도하려는 이를 만날 수 있다. 52년생 착실하게 진행한다면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64년생 희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76년생 해 목은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게 된다. 88년생 무난한 하루가 진행될 것이다. 00년생 다방면으로 고루 안배 하는 지혜가 절실하다.</p> <p>행운의 숫자 : 76, 28</p>	<p>34년생 짐작 해야만 이를 수 있다. 46년생 경멸을 되살린다면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 58년생 잘 헤아려 봐야할 일이 있겠다. 70년생 별로 상관 될 일이 아니니 폐념지 말고 처리하라. 82년생 개별적인 고찰이 옳은 판단을 낳으리라. 94년생 한 번 나타난 정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p> <p>행운의 숫자 : 99, 51</p>
<p>41년생 관계가 부실하니 설정과 활용에 유의하라. 53년생 뻔히 다 알면서도 위태로운 상황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다. 65년생 생인과 직접 얘기해야 쉽다. 77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매듭지어진다. 89년생 지지만 투철하다면 반드시 극복 될 것이다. 01년생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p> <p>행운의 숫자 : 95, 69</p>	<p>35년생 전환의 기회가 있으니 잘 활용해 보자. 47년생 잘 살린다면 예상보다 많은 결실이 따른다. 59년생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헛웃음 뿐이다. 71년생 특수한 상황까지 감안하는 것이 완성도를 높인다. 83년생 사소한 흠결을 주의하라. 95년생 확실한 의사 표시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p> <p>행운의 숫자 : 35, 09</p>